

교회소식

- **살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 뉴욕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피해가 심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주 일부 지역에서는 주 전체적으로 시행되었던 경제활동 제재조치가 해제되고 제한적으로나마 경제활동이 다시시작되었습니다(코넥티컷은 5월20일부터). 그러나 웨체스터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5월28일까지 제재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세, 이용 가능한 병상 수, 검사 및 추적 능력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재개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재개방은 필수적이고 대인 접촉 위험성이 적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건축 및 제조업이 1 단계, 소매업이 2 단계, 식당은 3 단계, 문화 및 오락 산업은 마지막 4 단계입니다.

교회는 연방 및 주 정부와 지역과 의료 당국의 발표를 주시하면서 교회 모임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활동 제재조치가 해제되고 제 1 단계 재개방이 이뤄진다고 해도 교회 예배는 제한적인 형태로 이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지나서 재개방 날짜를 거론할 수 있게 된 것은 비상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뉴욕주에만 수만 명이 입원해 있고 하루에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책임감있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중보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 자기를 돌아보아 지키고 씻고 튼튼히 합시다.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 말씀 묵상과 진솔한 기도, 서로를 위한 중보와 연락에 더욱 힘을 씁시다.
 - 성숙하고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법을 배워갑시다.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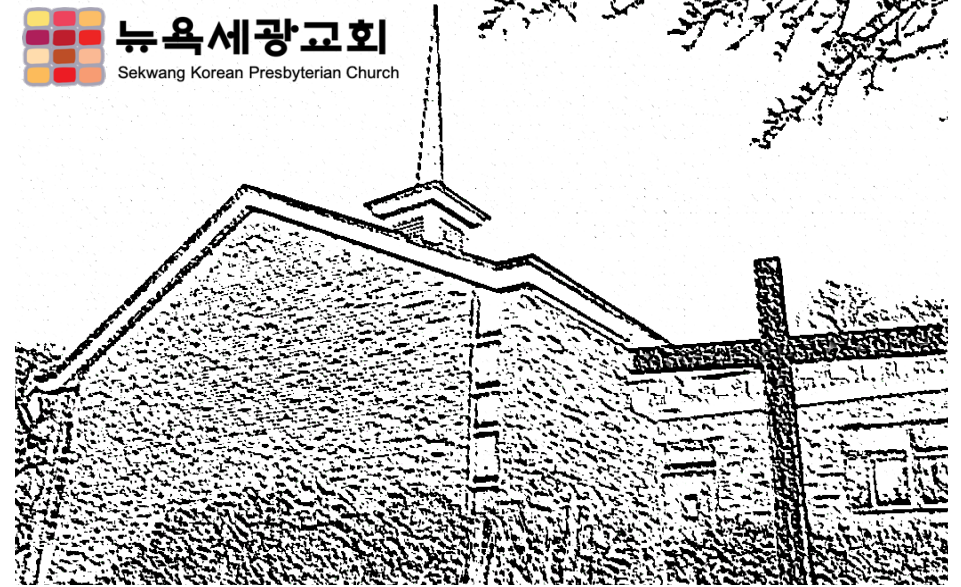
5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9호

2020년 5월 17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Worship & Praise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5:1-12 Matthew 5:1-12
설교 Sermon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445장(통502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I need You more”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Jeremiah 7: 1-11 Leader
Sermon	“What Makes Us People of God?”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지난 주 주일 말씀

합당하시도다 마태복음 4:12-25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분봉왕 헤롯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고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과 생명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멀리 받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의 선포처럼, 그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었습니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나라가 임했으니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에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고 제자들을 부른 것은 당연했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곧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이루시리라는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잠시 잡고 있던 마귀를 묶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것도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을 일의 전조였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오시리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조롱받던 갈릴리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한 영광을 주셨을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들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영광입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계산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가난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사랑 받을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뤄질만한 기도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듣고 어디든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합당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인봉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에 합당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드리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계산을 접고, 모든 자랑을 거두고, 모든 두려움을 맡기고 전심으로 따르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Memo>